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6월

(브렉시트와 일본경제)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세	2
2. 무역수지 4개월 만에 적자 반전	6
3. 엔고·저주가·마이너스 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브렉시트와 일본경제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감소	16
2.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18
V.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2. 주요 경제 일정	22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1/4	2/4	3/4	4/4	1/4	3월	4월	5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0.2	112.2p)	-
GDP증가율(연율,%)	△0.0	0.5	5.2	△1.7	1.7	△1.8	1.9p)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70.1	20.8	16.3	17.9	17.2	20.1(p)	-	-
	공공투자	24.5	23.4	6.3	4.1	5.0	6.1	6.5(p)	-	-
해외직접투자(조엔)*	79.0	70.0	15.5	14.8	17.6	21.8	19.6	7.5	3.7	-
소비자물가	전기비	2.6	0.5	△0.3	0.2	0.0	0.1	△0.3	0.1	0.3
상승률(%)	전년동기비	2.6	0.5	2.1	0.1	△0.1	0.0	△0.1	-0.3	△0.3
실업률(%)		3.6	-3.4	3.5	3.3	3.4	3.2	3.2	3.2	-
수출(조엔)		73.1	75.6	18.9	18.8	19.0	18.8	17.5	6.5	5.9
수입(조엔)		85.9	78.5	20.4	19.1	20.0	19.0	17.2	5.7	5.1
무역수지(조엔)		△12.8	△2.9	△1.4	△0.3	△1.0	△0.2	△0.3	0.8	0.8
경상수지(조엔)		3.9	16.4	4.2	3.8	5.0	3.6	5.9	3.0	1.9
환율	달러	105.8	121.1	119.1	121.4	122.3	121.5	115.3	113.1	109.9
	원화(100엔)	996	935	923	905	957	953	1,043	1,052	1,044
금리(10년물,%)		0.55	0.36	0.34	0.40	0.40	0.31	0.051	-0.062	-0.092
주가(닛케이)		15,460	19,203	18,226	20,058	19,474	19,035	16,843	16,897	16,544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완만한 회복세

- '16.4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2.2로 전월비 2.0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 '16.4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407억 엔 적자

- '16.5월 수출은 5조 910억 엔, 수입은 5조 1,317억 엔

☐ (환율) 엔고 가속

- '16.5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9.2 엔으로 전월비 0.6%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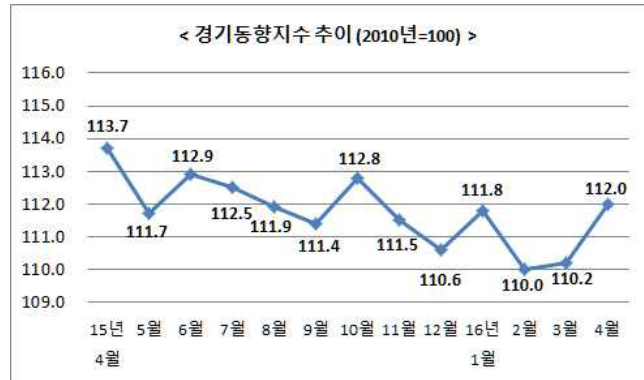
* '16.5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75엔으로 전월비 3.0% 엔고·원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세

□ (경기기조 판단)

- 일본경제는 부분적인 약세 속에서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음
- 생산과 수출은 지진의 영향도 있어 답보상태, 소비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설비투자는 약간 회복, 고용도 개선



자료 : 내각부

- 4월 경기동향지수는 112.2로 전월보다 2.0p 개선

□ (전 망)

- 일본경제는 해외경제의 감속과 엔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공공투자의 진척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이 예상
- 또한 고용·소득환경의 개선과 각종 정책의 효과도 회복에 기여
- 다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보유국들의 경기부진이 경기하강압력으로 작용할 위험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구마모토 지진의 악영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
- 또한 일본경제는 2016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엔고가 기업수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도 증가하기 어려워진 만큼, 소비의 정체가 보다 장기화될 리스크도 있음
- 다만, 소비세 인상의 재연기로 가수요 등 소비수요와 관련된 장래의 불투명성은 완화될 전망

<GDP>

- 일본 내각부가 6월 8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GDP 성장률 개정치(2차 속보치, 실질)는 전기비 0.5%, 연율 1.9%로 1차 속보치(전기비 0.4%, 연율 1.7%)보다 약간 상향조정
- 1차 속보치에 비하면, 민간설비투자가 크게 상향조정됨
 - 설비투자는 1차 속보치의 1.4% 감소에서 0.7% 감소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음
 - 부동산, 운수, 기계류 등의 설비투자가 둔화된 반면, 수송기계의 설비투자는 증가
- 개인소비도 0.5% 증가에서 0.6%로 증가폭이 확대. 휴대전화와 자동차 판매가 호조
- 주택투자도 0.8% 감소에서 0.7% 감소로 소폭 상향조정
- 공공공사는 0.3% 증가에서 0.7% 감소로 반전
- GDP의 60%를 점하는 개인소비가 비교적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내각부는 2015년 4분기에 0.8% 감소로 떨어졌던 데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어, 경기의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GDP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1차 속보치의 0.2에서 0.3으로 증가한 반면, 외수의 기여도 0.2로 1차 속보치와 같음
 - 수출은 전기비 0.6% 증가함으로써 기여도를 높였으며, 특히 방일외국인들의 소비가 호조를 보여 GDP를 전기비 0.1% 증대시킨 효과가 있었음
- 2분기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음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전기비	△0.0	0.6	△0.7	0.5	1.3	△0.4	0.4	△0.4	0.5
전기비연율			△2.7	2.1	5.2	△1.7	1.7	△1.8	1.9
전년동기비			△1.5	△1.0	△1.0	0.7	1.8	0.7	0.1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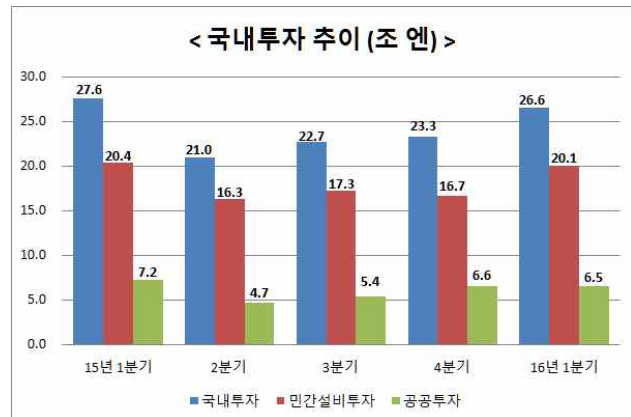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6.1분기 국내투자 GDP의 21.3%

- ‘16.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4.0% 증가한 26.6조원으로 GDP의 21.3%

□ (민간설비투자)

- ‘16.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0.6% 증가한 20.1조 엔, 국내 투자의 75.7%를 차지
- 그러나 실질기준으로는 2분기 만에 전기비 1.4% 감소, 금년 초 이후 엔고와 더불어 기업들의 경기 불투명감 등이 투자에 악재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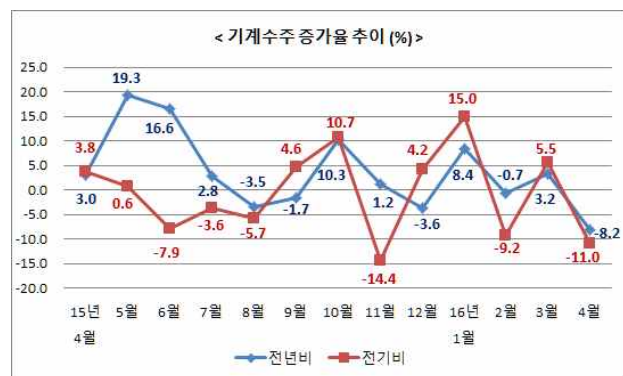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6년 3월)에 의하면, 2016년도는 전 산업에서 설비 투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과잉감은 개선되는 경향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4월 기계 수주는 엔고와 해외경제 감속 등으로 전월비 11.0% 감소

□ (공공투자)

- ‘16.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6% 감소한 6.5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4.3%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는 완만한 감소경향
- 3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6.8% 감소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그러나 2015년 12월에 결정된 3.3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최근 0.8조엔의 구마모토지진 복구 예비비 편성은 공공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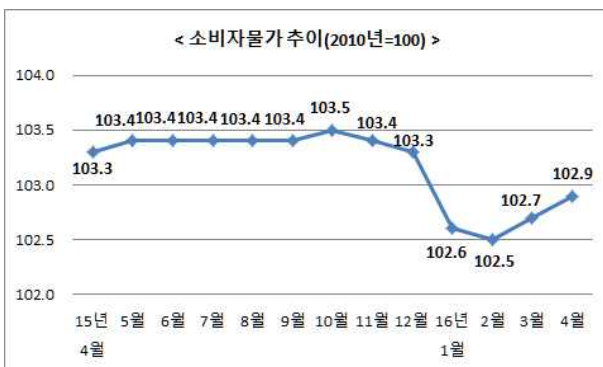
□ '16.4월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 '16.4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2.9(2010년= 100)로 전월비 0.3%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0.3%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비 0.7% 상승
- 당분간 물가하락에 대한 유가하락의 영향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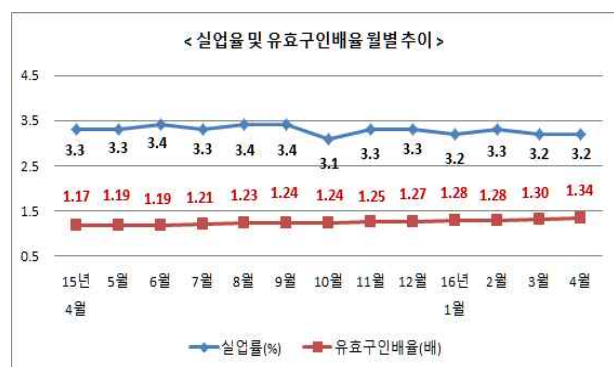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4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2%
 - 15~24세의 청년실업률은 전월보다 0.9%p 하락한 4.9%
 -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 완전실업자 수는 보합상태
- 16.4월 유효구인배율은 신규 구인 수의 증가와 함께 1.34배로 상승, 여전히 고용수요의 증가를 반영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4개월만에 적자 반전

□ (총 합) 수출 급감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 ‘16.5월 무역수지는 407억 엔 적자로 4개월만에 적자 반전
- 수출의 급감이 적자반전에 기여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2,946억 엔에서 4,011억 엔으로 확대된 동시에, 對 미국 무역흑자도 전월의 6,148억 엔에서 3,456억 엔으로 축소

< 2016년 5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5.9	-10.1	-8.8	5.1	-11.3	-13.6	29.1	-7.0
수 입	5.1	-23.3	-11.2	5.1	-13.8	1.3	27.4	-16.7
수 지	0.8	-	9.2	-0.04	-81.1	-95.0	1.1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6.5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5월 수출은 엔고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3.6% 감소한 5조 910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10.6% 감소
- 전월과 비교하여 원동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5대 수출 품목으로 포함된 가운데, 철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감소
-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19.5%로 가장 큼

< 2016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9,132	-6.7	-11.1	7,444	-2.2	-18.5	35,799	-21.6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43	-10.8	-4.7	2,551	-20.0	-13.3	11,153	-30.0
3	자동차부품	3,062	-3.2	2.4	2,464	-2.8	-19.5	10,409	-27.0
4	철강	2,192	-32.0	-16.8	2,301	-24.1	5.0	9,657	-41.4
5	플라스틱	1,949	-7.4	0.1	1,729	-12.9	-11.3	9,147	-10.6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19.2%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8.0% 감소

< 2016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2,005	-11.8	-8.2	9,699	-10.7	-19.2	58,247	-6.6
2	중국	1,0352	-7.6	-7.2	9,019	-14.9	-12.9	48,471	-8.7
3	ASEAN	8,823	-11.5	-5.1	7,828	-10.5	-11.3	42,107	-13.9
4	EU	7,025	9.9	-11.1	5,778	-4.0	-17.8	33,816	4.9
5	한국	4,120	-14.2	-6.2	3,791	-9.1	-8.0	20,184	-12.7
6	대만	3,313	-9.9	-8.6	3,363	-9.2	1.5	16,693	-8.5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5월 수입은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6.5월 수입은 5조 1,317억 엔으로 전월비 1.3% 증가

- 수입물량도 전월비 2.6% 증가

- 원유의 수입의 증가가 전체 수입의 증가반전에 기여
- 액화천연가스가 수입순위 5위로 밀려난 가운데, 원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8.7%로 가장 큼
 - 수입 감소 국가 중에서는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9.4%로 가장 큼

< 2016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3,531	-51.8	-24.5	4,493	-30.6	27.2	21,221	-39.6
2	의약품	2,209	-8.8	9.7	1,931	-4.1	-12.6	11,438	9.1
3	의류·동부속품	2,362	-15.4	-11.1	1,920	-3.6	-18.7	12,230	-6.7
4	반도체 등 전자부품	1,949	-20.5	-11.6	1,902	-13.5	-2.4	10,467	-15.7
5	액화천연가스	2,320	-44.5	-33.0	1,833	-41.9	-21.0	14,661	-46.7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6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3,299	-16.8	-9.4	13,030	-9.7	-2.0	71,079	-9.6
2	ASEAN	7,654	-20.9	-15.3	7,617	-10.9	-0.5	42,243	-16.2
3	EU	6,175	-8.4	-9.7	6,514	-1.5	5.5	33,842	1.1
4	미국	5,857	-18.1	-5.7	6,242	-8.5	6.6	30,304	-11.1
5	호주	2,524	-32.8	-8.2	2,286	-24.0	-9.4	13,265	-29.4
6	한국	2,015	-30.2	-11.6	2,190	-21.4	8.7	11,025	-21.4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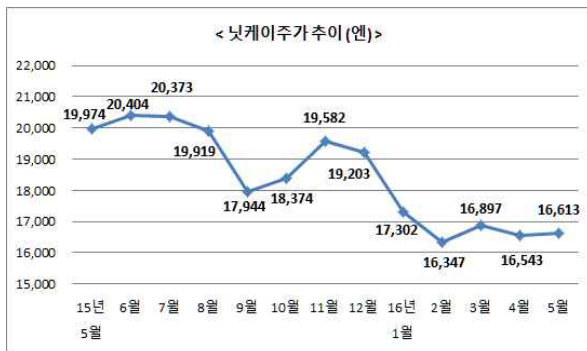
3. 엔고 · 저주가 · 마이너스 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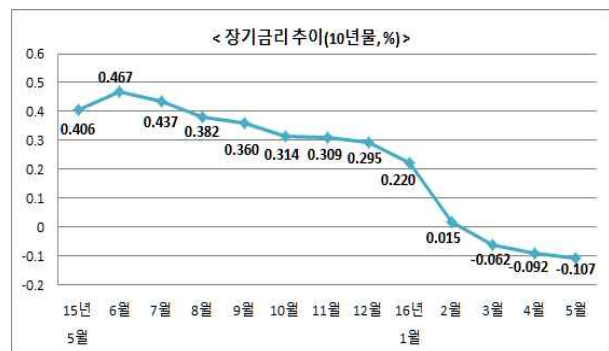
- '16.5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0.4% 상승한 16,613엔

□ (금 리)

- '16.5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영향이 본격 화됨에 따라 전월의 -0.092%에서 -0.107%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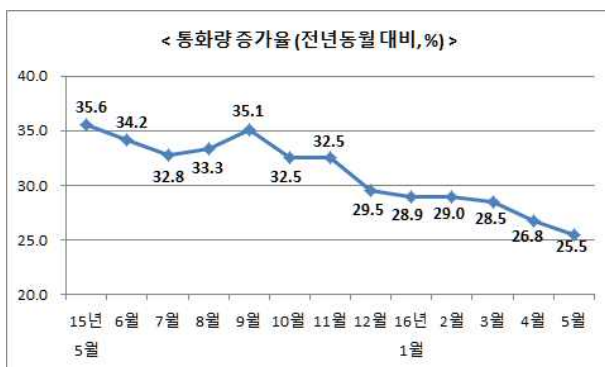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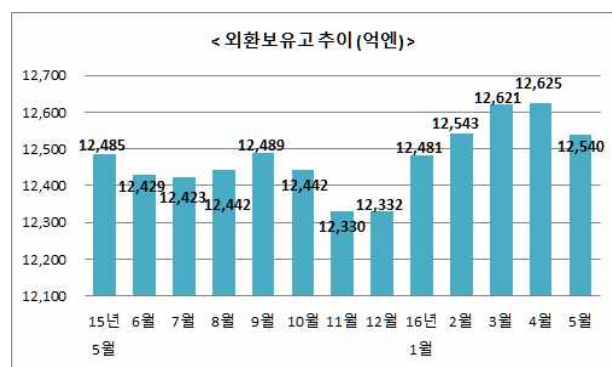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6.5월 본원통화(머니테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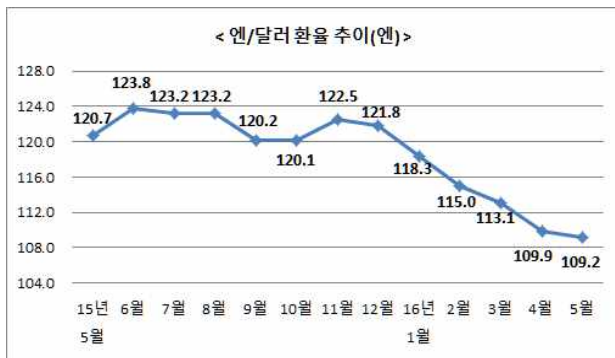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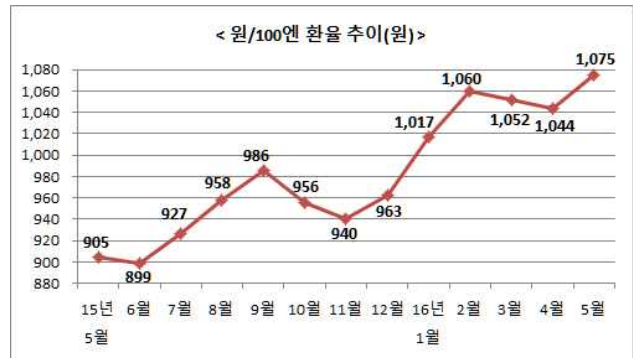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6.5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0.6% 하락한 109.2엔(엔고)
 - ‘16.6월 들어서도 한때 103엔대까지 엔고가 가속
-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후퇴,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 보류, 영국의 EU탈퇴 가능성 등이 엔고 환경을 조성
- ‘16.5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75원으로 전월의 1,044원에 비하여 3.0%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 (동 향) 최대 투자지역인 북미·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큰 폭 감소

- ‘16년 4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6,940억 엔으로 전월비 51.0%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5	2015			201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월	3월	4월	1-4월
금 액		696,396	147,919	176,072	217,554	196,248	61,649	75,273	36,940	233,188
증가율	전기비	-11.8	-4.5	19.0	23.6	-9.8	3.9	22.1	-51.0	-
	전년동기비	-11.8	-30.8	2.8	9.7	26.7	31.7	36.8	-5.9	20.1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 對 미국 직접투자는 5,355억 엔으로 전월비 84.4% 감소
- 對 유럽 직접투자는 2조 1,467억 엔으로 24.6% 감소
- 對 한국 직접투자는 188억 엔으로 29.6% 감소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4분기		1분기		4월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세계	696,396	-11.8	217,555	23.6	196,248	-9.8	36,940	-51.0	233,188
아시아	141,593	19.0	32,004	-25.0	22,851	-28.6	6,238	-20.3	29,089
중 국	14,659	1.1	3,823	2.4	3,179	-16.8	977	-18.0	4,156
한 국	4,714	-20.6	1,193	2.0	721	-39.6	188	-29.6	909
북 미	237,283	-2.9	88,902	50.7	81,748	-8.0	6,226	-82.0	87,974
미 국	230,435	-2.9	87,905	51.7	80,800	-7.8	5,355	-84.4	86,155
중남미	22,758	49.4	6,214	30.1	3,574	-42.5	1,138	-46.7	4,712
유 럽	269,749	-30.4	85,022	32.1	83,122	-2.2	21,467	-24.6	104,589
대양주	19,126	1.2	2,737	-11.6	2,904	-8.9	995	-29.0	3,899
중 동	1,805	46.9	405	7.7	815	101.2	127	-61.6	942
아프리카	6,843	7.3	1,817	2.7	1,225	-32.6	749	63.5	1,974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연간으로 전년의 2배인 11조엔에 달하여 과거 최고를 기록
- 인구감소와 국내시장의 축소 하에서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 수액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브렉시트와 일본경제

1. 영향

1) 엔화 환율

- 6월 24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엔화 환율이 99엔대로 급등, 주가도 한때 하락폭이 1,300엔을 상회하는 14,000엔까지 급락
 - 원화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로, 99엔의 엔고 수준도 2년 7개월만임
- 엔화환율은 EU 탈퇴 결정전에도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엔고가 진행 중이었으며 6월 16일에는 103엔대로 1년 10개월만의 엔고를 기록하기도 했음

□ 영국의 EU 탈퇴 변수

-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확대되고 안전자산인 엔으로의 자금도피 현상이 발생
 -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등은 탈퇴를 결정하는 경우 소비와 투자가 냉각되는 것 외에 파운드도 급락, 성장세와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영국과 유럽의 경기변조가 세계경제에도 파급될 우려가 강할 것이라고 함

□ 미국의 금리인상 후퇴

- 최근 엔고는 영국의 EU 탈퇴만이 아니고 미국의 금리인상 관측후퇴에 의한 달러화 약세가 유발되고 있는 측면도 강함
- 엘렌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의장은 6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용 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한편, 7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달러화 강세와 약세 모두를 전망케 하는 태도를 보임

- 그러나 미국의 선물시장은 미국의 고용급감으로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인상확률을 0%로 예측, 금년 중 금리인상 확률조차도 6월 15일에는 50%를 하회
- 미즈호은행 관계자도 엘렌 의장이 고용감속을 명언함에 따라, 금리인상 기대는 크게 후퇴했으며, EU가 잔류하더라도 엔화매입압력이 남아있어 110엔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보류

- 일본은행은 6월 16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금융정책의 현상유지를 결정하고 추가금융 완화를 보류
-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마이너스금리의 양적·질적 완화를 계속
- 앞으로도 거시경제·물가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물가안정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 질, 금리 등 3가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금융완화조치를 강구

□ 엔의 실질환율(구매력)

- 현재의 엔고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나 아직도 구매력평가(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 달러당 약 100엔)를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도 엔고 여지는 남아있음

2) 실물경제

- 영국의 EU 탈퇴는 일본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급격한 엔고와 주가하락은 일본의 수출기업들의 채산을 악화시켜 기업수익과 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주가하락도 소비자들의 심리를 냉각시킴
- 일본의 민간연구기관들은 영국의 EU 탈퇴가 일본의 GDP성장률을 0.1-1% 떨어트릴 것으로 시산
- 파운드화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무역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영국은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IMF는 2017년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상

- 다만 세계 전체 GDP에서 점하는 영국의 비율은 4%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역 축소를 통한 세계 및 일본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면 세계경제와 일본경제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일본경제가 최초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기업부문임
 -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달러당 100엔을 하회하는 엔고가 정착되는 경우, 일본 내 생산의 채산이 맞지 않아 설비투자가 감속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세계경제의 감속과 채산악화로 일본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던 기업수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주가하락으로 부유층의 소비가 감소하는 외에, 기업실적의 악화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절약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미즈호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1년간 0.1-0.8%포인트 정도 GDP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가 하면, 미쓰비시 모건스탠리 증권 관계자는 엔화환율은 최대 6엔 정도, 주가는 3,700엔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일본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시, 당분간은 환율의 안정이 초점이나 경제대책과 금융완화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음
 - 다이와연구소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엔고대책 및 소비의 환기책 등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모건스탠리 증권 관계자도 자금공급량을 20조엔 정도 늘리는 양적금융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2. 대응

1) 일본정부

- 아베 총리는 6월 24일 영국의 EU 탈퇴에 대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경제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영국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엔고의 영향에 빈틈없는 대응을 촉구

- 일본의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은 긴급3자회의를 열고, 해외시장의 동향과 금융기관의 대응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
- 일본은행은 은행의 달러자금조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 공급량을 늘릴 방침임
-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급격한 엔고가 진행되는 경우 일본 단독으로라도 엔 매도 개입도 포함한 대응을 할 방침
-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엔 급등 저지를 위한 엔 매도 개입시, 미국 등의 사전 양해를 얻도록 되어있음

2) 일본기업

-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에 진출해있는 일본기업들은 영국 신정부와의 관계 재구축, 거점의 이전 등 전략의 재구축 등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영국에 진출해있는 주요 일본기업들은 히타치제작소, 닛산자동차, 캐논, 혼다, 소니, 후지쯔 등

3. 전망

- 일본의 증권 관계자들은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일본정부가 달러당 100엔 이상의 엔고를 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개입을 예상
- 일본정부 내에는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는 경우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일본경제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엔 매도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큼
- 그러나 루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엔고가 정상적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후보들도 일본정부의 엔 매도 개입에는 비판적임
- 한편, 급격한 엔고진행으로 일본의 물가하락압력도 강해질 것이며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관측도 높아지기 쉬움
- 버클레이즈 증권 관계자도 엔고 등을 이유로 일본은행이 7월에는 추가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함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감소

□ (총 합)

- '16.5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448백만 달러 감소한 1,589백만 달러
 - 큰 폭의 대일수출 증가 반전이 대일무역적자 감소에 기여
- 5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4%에서 5.1%로 상승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8%에서 11.1%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6%에서 7.8%로 상승

< 2016년 5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1,775	-25.4	-13.5	2,042	-12.4	15.0	9,351	-15.7
대일 수입	3,812	-10.9	-9.2	3,632	3.7	-4.7	18,137	-8.5
무역 수지	-2,037	141	-113	-1,589	417	-448	-8,786	49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5월 대일 수출은 2,042백만 달러로 전월비 15.0%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 -3.1%, 일본의 수입증가율 1.3%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폭으로서 대일수출경쟁력 강화를 반영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4월	-25.4	-13.5	-11.2	-4.6	-23.3	-11.2
2016.5월	-12.4	15.0	-6.0	-3.1	-13.8	1.3
2016.1-5월	-15.7	-	-11.5	-	-16.7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이 없고 순위 변동만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증가
- 유가의 반전을 반영하여 광물성연료의 수출증가폭이 39.5%로 가장 크며, 이어 수송기계도 3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6년 5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1,775	-25.4	-13.5	2,042	-12.4	15.0	9,351	-15.7
1	철강제품	217	-12.9	-16.5	258	6.2	18.9	1,189	-5.6
2	광물성연료	129	-59.2	15.2	180	-53.7	39.5	736	-53.0
3	전자부품	142	-24.1	-16.0	147	-21.4	3.5	736	-23.5
4	수송기계	108	9.6	-7.7	145	52.0	34.3	597	19.5
5	정밀화학제품	101	-16.6	-16.5	128	8.0	26.7	549	-4.3
6	산업용전자제품	83	-74.7	-25.2	103	-66.3	24.1	488	-61.4
7	석유화학제품	106	-17.1	20.5	101	-15.5	-4.7	462	-18.0
8	금속광물	83	-16.2	31.7	99	0.8	19.3	403	-7.5
7	기계요소공구·금형	84	1.0	-16.0	98	24.9	16.7	452	15.0
10	농산물	74	-20.5	-11.9	82	6.6	10.8	371	-9.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6.5월 대일수입은 3,632백만 달러로 전월비 4.7%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의 증가율 1.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4월	-10.9	-9.2	-14.9	-2.8
2016.5월	3.7	-4.7	-9.0	1.9
2016.1-5월	-8.5	-	-14.6	-

○ 대일수입도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이 없고 순위 변동만 있는 가운데, 정밀기계, 수송기계, 철강제품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감소

- 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기계의 감소폭이 -18.4%로 가장 큼

- 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증가폭이 23.6%로 가장 큼

< 2016년 5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4월			2016.5월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3,812	-10.9	-9.2	3,632	3.7	-4.7	18,137	-8.5
1	전자부품	555	0.7	-11.3	478	8.4	-13.9	2,507	-1.4
2	철강제품	412	-25.8	-6.4	414	-5.4	0.5	2,025	-21.4
3	석유화학제품	326	-32.9	-2.1	324	-29.3	-0.6	1,561	-28.1
4	정밀화학제품	351	-3.7	-3.3	313	19.9	-10.8	1,641	1.8
5	산업용전자제품	276	6.1	-3.2	266	45	-3.6	1,247	15.1
6	정밀기계	208	-17.5	-27.3	257	65.2	23.6	1,111	-14.7
6	기초산업기계	265	-1.6	-9.6	229	-4.9	-13.6	1,248	-1.7
8	수송기계	196	-1.9	-13.3	208	-1.5	6.1	981	-5.9
9	플라스틱제품	191	-8.5	0.5	190	2.2	-0.5	919	-7.9
10	산업기계	185	-6.2	-7.0	151	-4.8	-18.4	842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동 향) '16.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감소로 반전

○ '16.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61백만 달러로 전기비 65.8% 감소

- 전년동기비로도 44.3%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22.8%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도 전기비 44.5%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5.2분기		2015.3분기		2015.4분기		2016.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79 (17.9)	470 (111.7)	61 (-22.8)	161 (-65.8)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774 (24.0)	7,639 (73.7)	667 (-13.8)	4,241 (-44.5)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기저귀용 부직포 생산 1위인 도레이가 한국 자회사가 임차하고 있는 경북 구미공단에 60억엔(약 671억 7300만원)가량을 투자하여 신 공장을 건설할 예정
 - 신공장의 가동으로 동사의 생산능력은 10% 증가한 년산 17만 1천톤
 - 신공장에서 생산한 부직포는 한국 내 종이기저귀 공장 외에 중국에 있는 일본투자 기업에도 공급(2016.6.17. 닛케이)
- (주)트라이텍스가 안산 반월공단 내에 트라이테크 코리아 공장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
 - (주)트라이텍스는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인 중부지역 나고야 인근에 본사를 두고, 기계 자동화 장치 설계 및 각종 산업·공작용 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2016.5.24. 부천신문)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대한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대한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4월~2016.5월)

□ 국내 기관

- 『일본 종합상사의 전략변화 분석과 시사점』 KOTRA, 2016년 6월20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IN020M.html>
-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직개편 내용』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6월1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737>
- 『엔고 전환으로 수익성 하락 압력 받는 일본기업의 대응』 LG경제연구원, 2016년 6월10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6&ctype=g&grouping_seq=01040200_512
- 『日 전력산업 전면개방과 시사점 - 에너지 新산업의 부상을 중심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 2016년 6월9일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4110>
- 『한·중·일 혁신경제 정책의 비교 및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6월8일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Uono&nttId=189665&pageIndex=1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6년 6월3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6953&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저성장기 일본은행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6년 6월2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194062>
- 『일본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 LG경제연구원, 2016년 6월1일
<http://www.lgeri.com/EU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713>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6년 5월24일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idx=52376

□ 일본 기관

- 『2016년판 통상백서』 경제산업성, 2016년 6월22일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6/index.html>
- 『2015년도 일본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조사결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6년 6월22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6/045_honbun.pdf
- 『일본 해외현지법인의 조달행동에 관한 정량적, 시계열적 파악』 경제산업성, 2016년 6월18일
<http://www.meti.go.jp/statistics/toppage/report/minikeizai/kako/20160617minikeizai.html>
- 『기업주체의 규제개혁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경제산업성, 2016년 6월18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416.pdf
- 『일본재흥전략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일본수상관저, 2016년 6월16일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2016_zentaihombun.pdf
-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한 대일직접투자 촉진정책』 일본내각부, 2016년 6월10일
http://www.invest-japan.go.jp/promotion/policy_package_jp.pdf
- 『2016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경제산업성, 2016년 6월9일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532/2016_houkoku01.html
- 『일본 모노즈쿠리산업의 과제와 대응방향성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6년 6월 8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347.zip
- 『제조업의 입지경쟁력과 국내투자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6년 6월8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345.pdf
- 『일본 제조업의 최근 상황인식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6년 6월8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344.pdf
-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 ICT전략과 국가전략·경영전략의 통합』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6월4일
http://www.jcer.or.jp/policy/pdf/160323_policy1.pdf
-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업전략의 혁신』 일본종합연구소, 2016년 6월1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jrireview/pdf/8846.pdf>

2. 주요 경제 일정

<6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7	· 日·몽골 FTA 발효
8	· ‘16년 1분기 GDP 개정치 발표 : 전기대비 실질 0.5%, 명목 0.6%(내각부) * 속보치 : 전기대비 실질 0.4%, 명목 0.5%
	· 4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9	· 아시아유럽회의(ASEM) 재무장관회의(몽골)
15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 결정회의
	· 도요타자동차 주주총회
20	·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 2호기의 운전기간 연장 * 재가동 시기는 ‘19.10월 이후가 될 전망
22	· 참의원 선고 공시 : 45선거구의 73의석과 비례대표 48의석 * 18세 선거권 시행 후 첫 선거
24	· 日ASEAN 포럼(도쿄)
25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첫 연차총회(베이징)
27	· 제10차 한중일FTA 협상회의 수석대표회의(서울)
28	· JENESYS2016 한국대학생 일본방문단 방일
29	· G20 에너지장관 회의(베이징)

<7월 예정 >

일자	주요내용
9	· G20 무역장관 회의(상하이)
10	· 참의원 선거
15	· 아시아유럽회의(ASEM) 정상회담(몽골)